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김민수***

<차례>

1. 서론
2. 다문화 설화의 작품서사적 가치 분석
 - 2.1. 남녀서사에 해당하는 설화 <말괄량이 깨오>
 - 2.2. 부부서사에 해당하는 설화 <깡깡뱀>
3. 다문화 설화의 작품서사로서 활용 가능성
4. 결론

* 본 논문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자료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수행됨(과제번호 AKS-2016-KFR-1230004).

** 본 논문은 한국문학치료학회 제174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논의에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토론자와 심사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다양한 조언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구자의 부족함 때문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강사

1. 서론

문학치료학은 처음 태동¹⁾한 이래 서사에 대한 고민²⁾을 주춧돌 삼아 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결실 위에 발전해왔다. 이를 토대로 최근 문학치료의 영역은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에서부터³⁾ 실제 상담과 치료,⁴⁾ 그리고 서사지도⁵⁾와 스키마 이론과의 접목⁶⁾에 이르기까지 그 학문적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연구가 문학치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으나 지면의 한계상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인간이 문학을 향유하며 자신들의 서사를 문학에 투영하면,⁷⁾ 문학치료학은 ‘인간이 곧 문학이며 문학이 곧 인간이다’라는 관점⁸⁾ 아래 문학과 인간의 서사를 돌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편, 문학치료가 빠르게 발전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는 명

-
- 1) 정운채, 「사회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치료학을 위한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1, 청관고전문학회, 1999, 165~187면.
 - 2) 김정애, 「문학치료학의 ‘서사’개념의 정립 과정과 적용 양상」,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등.
 - 3) 박재인, 「한중일 조왕서사를 통해 본 가정 내 책임과 욕망의 조정 원리와 그 문학치료학적 의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4) 황혜잔김정애조은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문학치료 실행연구 시론」, 『문학치료연구』 1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김혜미, 「폭력서사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연구: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5)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6) 나지영, 「인지역동 스키마 이론과의 연계를 통한 문학치료학 서사이론 발전 방향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7) “모든 문학적 글쓰기는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표현하는 문학적 글쓰기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상상력의 힘을 빈 허구적 글쓰기이므로 실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다.” (배영와김성범, 「문학치료의 텍스트 해석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폴 리콰르의 은유, 상징, 내러티브 해석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42면.)
 - 8)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면.

칭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마주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여러 학계에서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사회 변동의 폭을 예측하고 적응하고자 다양한 연구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집단 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공존하거나,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문화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고, 2016년 전체 인구의 4%가 외국인이었으므로 인구 수치상으로도 이제 다문화사회는 완전한 현실이 될 것이다.⁹⁾ 더 이상 다문화 가정을 만나거나 한국인이 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TV에서나 가능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은 현장중심적, 정책적 접근이 많았고 그 결과 또한 포용이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충격을 완화하는 지원 개념에 그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많은 직·간접적 사회자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도 없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사회에 관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문화 설화를 조사하는 과정¹⁰⁾에서 수집된 다문화 설화가 단순히 DB로서 남을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문학치료학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다문화 설화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칭이 구체적으로 널리 쓰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9) 2016년 기준 결혼이주자는 15만명에 육박하며,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율도 7-8%대에 이른다. (통계청 발표자료,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참조, <http://kosis.kr>) 이러한 수치는 더 이상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서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의 일부로써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가정’이 후대를 생산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토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서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구축사업(AKS-2016-KFR-1230004).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본고에서 다루는 다문화 설화작품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구술한 본국의 설화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본국의 설화가 통·번역 과정에서의 개입과 손실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여러 나라에서 노동, 결혼 등을 이유로 한국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가정 제보자들이 구술한 설화¹¹⁾ <말괄량이 깨오>, <깡뽕뽕>을 대상으로 남녀서사, 부부서사의 핵심적 원리를 보여주는 지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화 분석이 문학치료 현장에서 어떤 작품서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¹²⁾ 좋은 작품서사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서사를 비추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거울을 찾는 것과 같으며 문학과 인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¹³⁾을 일으킬 수 있다. 다문화 설화작품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현장적 소통 방식이 문학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문학치료학의 자료적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치료 방식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 다문화 설화의 작품서사적 가치 분석

11) 자료로 사용된 자료들은 연구팀에서 직접 채록한 것이며 구연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것이어서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전사되어 사용된다. 또한 생소한 개념이나 줄거리의 확인 및 정리 과정정도를 제외하면 구술중인 이야기에 대해 채록자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12) 위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신동훈,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그림형제 민담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하은하,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대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하은하, 「콩쥐팍쥐 설화에 나타난 부부 갈등 양상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동아시아 신데렐라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논총』 28,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가 있다.

13)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9면.

문학치료에서는 인간관계의 양상에 따라 자녀, 남녀, 부부, 부모의 네 가지 서사를 기준으로 하고, 각 서사마다 가르기, 밀치기, 되찾기, 감싸기의 행동방식을 기본적인 서사 발현의 방식으로 보았다.¹⁴⁾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자기서사 진단의 명료함을 위해 하나의 설화가 하나의 주된 작품서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정하고 분석에 임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다문화 설화를 분석할 때 가르기, 밀치기, 되찾기, 감싸기 등의 수준 분석은 잠시 후속연구로 미루어 두려고 한다.

좋은 서사를 통해 문학과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문학치료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서사와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서사는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좋은 서사를 발굴해내고, 서사분석을 통해 해당 설화들이 얼마나 남녀서사와 부부서사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성해가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다문화 설화작품으로 캄보디아와 태국 설화를 선정한 이유는 두 설화가 모든 국가의 다문화 설화가 가진 보편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 아니다. 두 작품이 문학치료에서 언급하는 남녀서사, 부부서사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학치료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서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러 나라의 여러 설화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더 적합한 서사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실제 과정에 적용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적합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논의와 결과가 축적된다면 보다 정교한 서사 작품 선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선적으로 주 인물의 서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밝히며, 그 서사가 가진 치유적 힘을 확인하는 것이 다문화 설화 작품서사 분석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녀서사는 우리들이 남자 또는 여자로 살아갈 때에 작동하는 기초서사로, 그 주안점은 '선택'이다. 남녀서사는 '세상'보다는 '나'를 중심에 두고, '법칙'보다는 '소망'을 중심에 두어 '선택'하는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초

14) 정운채, 「자기서사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서사척도」,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215면 참조

서사라고 할 수 있다.¹⁵⁾ 부부서사는 우리들이 남편 또는 아내로 살아갈 때에 작동하는 기초서사로, 그 주안점은 ‘지속’이다. 부부서사는 ‘나’보다는 ‘세상’을 중심에 두고, ‘소망’보다는 ‘법칙’에 중심을 두어 ‘지속’하는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초서사라고 할 수 있다.¹⁶⁾

네 가지 서사 중에서 특별히 남녀부부서사에 집중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를 진단할 때 결혼이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유학이주나 노동이주보다 결혼이주의 형태가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면 2세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작동하는 서사가 남녀부부서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서사는 남녀, 부부서사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행복하고 조화로운 다문화가정과,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이해되어야 할 서사가 남녀부부서사이다. 두 서사는 완전히 같은 서사라고 보기에는 다른 부분도 있고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지만, 아주 다른 서사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남녀서사에서 부부서사로의 이행은 삶의 여정에서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마련이다. 사람마다 삶의 양상이 다르기에 반드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두 서사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¹⁷⁾

2.1. 남녀서사에 해당하는 설화 <말괄량이 껌오>

15) 정운채 외, 『문화치료학의 분야별 연구 성과』, 문학과 치료, 2013, 115면.

16) 정운채 외, 『문화치료학의 분야별 연구 성과』, 문학과 치료, 2013, 145면 참조

17) “남녀서사와 부부서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부부서사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서사가 전개되어야 할 그 지점에 남녀서사가 개입하게 된다.”(정운채, 「문화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화치료연구』 9, 한국문화치료학회, 2008, 255면.)는 분석을 보더라도 두 서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진행된 연구에 김혜미,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에 나타난 부부의 위기」, 『영화와문학치료』 1, 서사와 문화치료연구소, 2009가 있다.

우선 남녀서사에 해당하는 설화 <말괄량이 깨오>¹⁸⁾를 살펴보도록 한다. <말괄량이 깨오>는 태국 설화로,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 부부가 신이 구슬을 주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았다.
- (2)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깨오라고 지었다.
- (3) 깨오는 굉장히 말괄량이 같은 성격으로 자라났다.
- (4) 어느 날 왕자가 성 밖으로 나가 연을 날리다가 바람이 불어 연을 놓쳤다.
- (5) 놓친 연이 깨오 앞에서 떨어졌다. 깨오는 연을 주워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 (6) 왕자가 연을 쫓아와 깨오에게 연을 달라고 했으나 깨오는 돌려주지 않았다.
- (7) 왕자가 연을 돌려주면 깨오를 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자 깨오가 연을 돌려주었다.
- (8) 왕자가 궁으로 돌아간 뒤 시간이 지나도 깨오를 왕궁으로 부르지 않았다.
- (9) 깨오는 부모님에게 왕자와의 약속을 설명하고 왕에게 직접 가 이야기 해 달라고 했다.
- (10) 깨오의 부모가 왕에게 깨오와 왕자와의 약속에 대해 말하자 왕은 화를 냈지만 왕비는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 (11) 왕의 군사들이 깨오를 데리러 왔으나 깨오는 금 가마를 가져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 (12) 왕은 할 수 없이 금 가마를 보내 깨오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 (13) 왕은 깨오를 없애기 위해 깨오에게 수메르 산을 가져오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 (14) 깨오가 수메르 산을 가지러 가는 길에 도시를 만났다.
- (15) 도시는 깨오의 이야기를 듣고 날 수 있는 배, 산을 자를 수 있는 칼을 주었다. 그리고 얼굴을 바꾸어 준 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탈을 주었다.
- (16) 깨오는 날 수 있는 배를 타고 수메르 산에 가서 칼로 산을 잘라 왔다.
- (17) 왕은 당황했지만 깨오가 약속을 지켰으므로 어쩔 수 없이 깨오와 왕자를 결혼시키려고 했다.
- (18) 왕자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집을 떠났다가 거인에게 잡혔다.

18) 파일명: 태국_F002_20161114_03_와넷차_0001, (2016. 11. 14.(월) 13:00-16: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기숙사 세미나실에서 와니차와넷차진시 리와넷(태국, 여, 1990년생, 유학5년차)가 구연하고 박현숙, 김민수가 조사하였다.)

- (19) 깨오가 나는 배를 타고 거인 왕국에 가 칼로 거인을 죽이고 탈을 벗어 예쁜 얼굴로 왕자에게 갔다.
- (20) 왕자는 깨오와 사랑에 빠져 같이 밤을 보내고 아내의 증표로 깨오에게 반지를 주었다.
- (21) 왕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 죽은 거인의 복수를 위해 친구 거인이 왕자의 나라로 쳐들어 왔다.
- (22) 깨오가 거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거인이 깨오의 배를 차자 깨오의 배에서 딸 셋이 태어났다.
- (23) 깨오가 출산할 때의 피가 묻은 천으로 거인을 때리자 거인이 죽었다.
- (24) 깨오가 왕자에게 돌아가 자신이 과거의 그녀라고 말하자 왕자는 믿지 않았다.
- (25) 깨오가 반지를 보여주자 왕자는 깨오를 믿었고 깨오가 탈을 벗자 깨오는 예쁜 얼굴로 돌아왔다.
- (26) 왕자는 깨오를 알아보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다소 생소한 설화작품일 수 있어 자세하게 줄거리를 나열하였다. <말괄량이 깨오>는 크게 두 사건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깨오가 왕자를 만나서 왕궁으로 가는 과정이다. 줄거리 (1)–(12)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건은 왕궁을 나와 깨오가 겪는 모험으로 줄거리 (13)–(26)에 해당한다. 두 사건 모두 깨오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서사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은 깨오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자가 밖에 놀러가겠다고 이렇게 왕이랑 왕비한테 알려주고 밖에 놀러가서 연을 이렇게 날리는 놀이 했어요. 연 놀이? 연 놀이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연이 놓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조사자: 날아갔어요?] 네 되게 멀리 날아갔는데 깨오 앞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오는 그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꺼라고 이렇게 왕자한테 얘기했어요. 왕자가 이렇게 막 주우려고 뛰어가는데, 깨오는 돌려 주지 않고 내 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왕자는 그 속에는 되게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연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연을 주면 내가 왕궁으로 데려가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깨오는 그래서 연을 돌려줬어요.

우선 깨오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작품의 서사를 이해하는 첫 걸음

이 될 것이다. 위에 언급된 부분을 볼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께오의 당당함이다. 왕자가 연을 달라고 하지만 왕궁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기 전까진 연을 돌려주지 않는다. 결국 왕자는 께오를 왕궁으로 초대하고 싶지 않았으나 연을 돌려받기 위해 약속을 한다.

“내가 왕자랑 약속했는데, 왕자가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 가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왕궁에 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 했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막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막 이런거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왕비는 착한 분이셔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는 날에 께오는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이렇게 그 군인들은 막 데려오러 왔는데 어 그냥 왔어요. 그래서 께오는 “나한테 금 가마로 싣고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금 가마를 보내서 데려갔어요.

껴오는 왕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부모에게 궁에 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일견 께오가 주체적인 인물이라면 스스로 궁에 가 왕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께오는 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왕자의 ‘초대’를 약속받았으므로 스스로 궁으로 가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라며 왕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왕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께오의 행동을 입증해주는 부분이 궁에서 초대가 왔을 때 바로 수락하지 않고 황금가마를 요청하는 장면이다. 군사들이 궁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 집 앞까지 왔으나 오히려 황금가마를 요청하는 데서 자신이 황금가마를 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런 당당한 표현과 자기인식은 “내 배 곱 아래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잘 삽니다.”라고 말하며 내 삶의 주인공은 나임을 주장¹⁹⁾하고 전상신에 오른 가문장아기의 자기인식에 버금간다. 첫 번째 사건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께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

19)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14, 338면 참조.

음이 자리 잡고 있다.

숲에서 도사를 만났는데 그 도사는 왜 여기 오냐구 물어봤더니 깨오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 해 주고 나서 도사는 그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신비한 물건들을 줬어요. (...중략...) 깨오 말 같이 생긴 얼굴을 벗을 수 있게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줬나요? 주문을 해 줘가지고 그래서 [조사자: 그러니까 그걸 풀 수 있는 주문 같은 걸 알려주요?] 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말 같이 생긴 얼굴을 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벗을 수 있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사자: 가면 같은 걸 줬다는 거예요?] 그 약간 이 탈을 벗으면 예쁘게 생긴 얼굴이고 탈을 쓰면 그대로인 얼굴

왕자와 약속한 대로 궁에 초대받은 깨오는 처음에는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깨오를 때내기 위해 고민하던 왕은 깨오에게 수메르 산을 잘라 오면 왕자와 결혼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궁에서 내쫓겠다는 시험을 낸다. 깨오는 수메르 산을 구하러 가는 길에 도사를 만나 하늘을 나는 배와, 산도 자를 수 있는 칼, 얼굴을 바꿀 수 있는 탈을 얻는다. 지금까지 문학치료 이론과 서사분석을 통해 깨오가 보여주는 남녀서사의 핵심 ‘나의 소망’ 그리고 ‘선택’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분석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인물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드러나기도 한다. 작품의 서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왕과 거인이 가지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해석하기 위해 그레마스의 행위항 도식²⁰⁾에 대해 보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주체는 깨오이며 조력자는 도사, 적대자는 왕/거인, 대상은 왕자로 정리할 수 있다. 또 대상의 파송자에서 수령자로의 전이는 왕이 파송하여 깨오가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의 행위도식항에서는 적대자와 파송자의 역할이 같은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자식을 독립시키고 새 가정으로 보내는 일이라면 이런 관계적 도식도 설정 가능할 것 같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A.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 Larousse, 1966, pp. 172-191.
자세한 설명은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90면 참조



핵심적인 두 번째 사건의 시작과 함께 서사의 구성을 정리해 보았다. 깨오의 남녀서사에 집중해서 보았을 때 눈 여겨 볼 화소는 얼굴을 바꿀 수 있는 탈이다. 깨오가 탈을 쓰면 원래 얼굴이 되고 탈을 벗으면 예쁜 다른 사람이 된다. 깨오가 가진 탈은 변신,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한다. 깨오가 예쁜 얼굴로 변했다는 것을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졌다고 보기 보다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거인에게 잡혀가가지고 왕자가 그래서 깨오는 그 소식을 듣고 왕자가 잡혀간 것을 듣고 그 비행선이랑 칼을 들고 거인왕국에 가요. 그래서 그 거인 나라에 가고 거인을 막 이렇게 [조사자: 물리쳐?] 네, 물리치고 죽였어요. [조사자: 죽여서?] 거인을 죽이고 탈을 벗어서 왕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왕자는 사랑에 빠지고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한밤을 지냈어요. (...중략...) 거인이랑 싸웠을 때 이렇게 거인한테 그 뭐죠 그 거인이 발로 찼어요 깨오한테 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배, 배에서 발로 찼더니 그 아이가 [조사자: 아이가 태어났어?] 네,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 세 명이, 막 태어나고 그리고 그 출산할 때 이렇게 피로 물든 천 있잖아요. 그 천으로 이렇게 거인을 때리고 그 때려서 약간 그 그 피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조사자: 성스러운?] 힘이 있어서 거인의 약간 마법이 [조사자: 안 먹히는구나]네. 거인이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중략...) 깨오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왕한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왕자한테 이렇게 탈을 자기가 그 때 그녀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왕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보여줬는데 아 그래서 왕자가 믿고 그리고 깨오는 탈을 벗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축하해주고 다들 신났고 “이렇게 예쁜 사랑이 있구나.” 얘기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깨오는 왕이 내 준 과제를 해결했으나 왕자와 바로 결혼하지 못한다. 왕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궁을 나섰다가 거인에게 붙잡힌다. 깨오는 거인을 물리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왕자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왕자의 마음을 얻어 함께 하룻밤을 보낸다. 하지만 다른 거인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깨오는 그 거인을 죽이는 과정에서 세 딸을 낳고 출산혈로 거인까지 물리친다.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거인을 물리치는 깨오의 모습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면모와 닮아있다. 이런 상징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 심성을 원관념이 생략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²¹⁾

반면 왕자는 깨오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왕자는 처음부터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왕궁으로 초대하겠다는 약속은 왕자가 했지만 약속에 대한 반응은 왕이 보인다. 깨오에게 수메르 산을 베어오라는 임무를 준 것도 왕이고, 임무의 보상으로 결혼을 제시한 것도 왕이다. 이런 모습은 왕자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하는 깨오와 완전히 대조되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앞서 그레마스의 행위항 도식 분석 과정에서 대적자에 왕과 거인을 함께 놓았는데, 이것은 왕과 거인이 동일한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깨오가 수메르 산을 베어 오음으로써 왕이 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왕은 왕자와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곤란해 한다. 왕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궁을 나선다. 왕자 역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깨오처럼 모험을 떠난 셈인데 여기서 왕자는 곧장 거인에게 붙잡히게 된다. 깨오가 대상인 왕자를 추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적대자이자 왕자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자 다시 자기 영역 안에 가두는 거인은 아버지인 왕의 이면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왕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독립시키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품에 두고 싶어 하는 파송자이자 적대자로서 서사 내부에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오는 마지막 위기 까지도 해결한다. 거인이 죽음으로써 결혼허락을 받는 부분은 왕이 아버지로서 이들을 대하다 성인으로 인정하고 독립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깨오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

21) 권기호, 『현대 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37면 참조.

버리고 왕자와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말괄량이 껌>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추구하는 껌오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소망, 영향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왕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녀 서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소망과 그 선택²²⁾의 지점을 서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괄량이 껌>와 설화를 자녀서사의 핵심적 측면인 ‘나의 소망’과 ‘선택’에 집중하여 해석해 보았다. 껌오는 서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자신’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남녀서사적 판단일 것이다. 자신의 소망을 선택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부모세계로부터의 분리를 동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괄량이 껌>은 주변의 반대나 백안시를 무릅쓰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구성한 다문화 가정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화작품으로서 문학치료적 가치가 충분하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이 낮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기 두려워하고 자꾸 부모(혹은 내담자의 인간관계에서 부모-자녀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확인받으려는 사람들과의 내담과정에서 활용되거나 제시되기에 적절한 서사적 역량도 가지고 있다.

2.2. 부부서사에 해당하는 설화 <깡깡뱀>

부부서사의 핵심을 보여주는 설화는 <깡깡뱀>²³⁾이다. 이 이야기는 앞서 남녀 서사를 가진 설화처럼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생활의 결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라는 장르적 특성²⁴⁾에 기

22)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63면 참조

23) 파일명: 캄보디아_F_033_20161217_01_체아다비_0004 (2016년 12월 17일 (토) 10:30-16:0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42번길 3에서 체아다비(캄보디아, 여, 1983년생, 결혼이주 8년차)가 구연하였고 박현숙, 김민수가 조사하였다.)

24) 전설 주인공의 형상은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는 실수에서 비롯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불행을 야기하여 주인공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장덕순

인한 것이다. 전설은 작품 내부 상징들의 긴밀한 작용을 통해 불친절하지만 강렬하게 문제를 제기²⁵⁾하는데 이런 전설의 작동방식은 작품의 내적구조가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비극적으로 단혀진 세계관적 구조를 갖지 않는다.²⁶⁾ 그러므로 비극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장르적 특성에 맞게 작품 내 외부의 반응을 통해 부부서사의 핵심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작품 서사 추출 방식일 것이다. 이야기는 캄보디아 설화 <깡깡뺨>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한 여자가 남편과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다.
- (2) 남편은 다른 지역을 다니며 장사하느라 오랜 기간 집에 없었다.
- (3) 아내는 먹을 걸 찾아 마를 캐러 산 속에 다녔다.
- (4) 어느 날 아내가 산 속에서 마를 캐다가 구렁이에 호미를 빠트렸다.
- (5) 호미를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구렁이가 나타나 말을 걸었다.
- (6) 아내는 호미를 꺼내주는 대신 구렁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 (7) 구렁이는 호미를 꺼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테니 저녁에 딸을 보내라고 했다.
- (8) 밤에 딸을 만난 구렁이는 딸에게 자신이 엄마와의 동침을 원한다고 말했다.
- (9) 밤에 뺨이 와서 아내와 동침하였다.
- (10) 몇 달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임신해 있어서 외도를 의심하고 딸에게 물었다.
- (11) 딸은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 해 주었다.
- (12) 남편은 계획을 세우고 아내가 집에 없는 날 딸을 시켜 뺨을 집으로 불러 죽였다.
- (13) 남편은 죽은 뺨을 요리해서 다음 날 먹고 아내에게 냇가로 목욕을 가자고 했다.
- (14)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다.

조동일서대석조희용,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74~78면 참조)

25) 김민수, 「한국 구비설화에 나타난 성적 욕망의 억압과 해소 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5면 참조

26)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6, 147면

(15) 남편은 아내의 배를 찔렀는데 그 배에서 뱀 새끼들이 나와 세상에 퍼졌다.

<깡깡뱀>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이 줄거리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인의 결정에 따른 결과가 (6)-(9)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10)-(15)에 해당한다. 처음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 순차구조로 분석해 보면 [문제 발생]-[일시적 해결]-[문제 해결]이라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줄거리(6)-(9)에서 부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으로 보아 완전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일시적 문제해결 이라고 보았다.

마 같은 거 캐러 다녔어요. 캐는데 대나무 앞에는 마도 엄청 많고 캐다가 이제 뭐 호미로 구멍 빠져 들었어요. 빠졌는데 아무리 꺼내도 안 되니까 꺼내려는데 거기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하고 막 이야기 해요. “내 호미를 주세요.” “만약 네 호미를 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래?”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막 하고 그러니까 “알겠소 그럼 내가 주겠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느 저녁에 다시 여기 와라 내가 얘기 해줄게.” (...중략...) 그러니 와서 뱀하고 바람을, 믿을 수 없지만 옛날이야기 속 이니까 이제 뱀하고 같이 잠도 자고 뭐 그런 거 했어요. (...중략...) 남편이 오더니 “내가 한 일 년 집에 없는데 왜 왔더니 마누라가 왜 임신했냐.”

뱀은 전 세계 어느 설화에나 등장할 정도로 원형적이고 광포해 있는 상징이며,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깡깡뱀>에서 뱀은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상징한다.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을 책임지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다.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는 크고 작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 각자 가정의 유지를 위해 맡은 역할이 있다.

여기서 아내가 맡은 역할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마를 캔다. 그러다 호미가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뱀이 등장한다. 이 화소는 부인에게 문제가 발생해 기존에 맡아오던 가정의 유지 역

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뱀은 호미를 꺼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아내와 동침한다. 뱀이 호미를 꺼내 준 것이 아내의 부정과 연관되는 것은 호미를 빠트린 상황에서 아내가 한 결정 때문이다. 여기서 뱀은 욕망을 상징하고 호미는 가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상징하는데, 아내는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욕망과 타협한 셈이다. 이것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가정의 파괴를 불러온다.

아 내가 목욕해줄게 해서 목욕하면서 이제 부인은 강가 가서 앞에서 옷 벗고 목욕하려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죽였어요. 칼로 배를 찔렀어요. 찔렀는데 막 쉴 새 없이 뱀이 나와요. 다 얘기 뱀 새끼 뱀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리 뱀을 죽여도 이제 강가도 가고 너무 많으니까 다 잡아 죽일 수 없어요. 그럴 때부터 쪽 이제 뱀이 생긴 이야기 쪽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속담 있어요. 바람피우는 속담인데, “냉리처럼 바람 피우고 얘기 뱀 낳지 마라.” 그런 속담 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임신해 있자 남편은 아내를 의심한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한다. 남편은 피를 내어 아내가 없는 사이 딸을 시켜 뱀을 집에 들고 뱀을 죽여 요리해 먹어 치운다. 그리고 함께 목욕하자며 아내를 강가로 데리고 가 죽인다. 위에 인용된 구술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 뱀이 퍼져 나가는 결말부이다.

그러나 뱀을 다 없애지는 못했고 뱀은 세상에 퍼져 나갔다. 이러한 화소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뱀이 욕망의 영속성 역시 상징한다는 것이다. 욕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 중 하나로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척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깡뱀>전설은 아내가 뱀과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올바른 해결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외에도 향유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깡깡뱀>이야기를 전승하는 화자들은 이 이야기가 뱀이 생기게 된 유래라고 하면서 이야기기를 구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의 화자는 깡깡뱀과 관련된 속담까지 함께 구술하였다. 아내가 죽는 과정에서 뱀이 세상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전승계층에게도 아내의 선택이 옳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

음을 의미한다.

<깡깡뺨>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부서사의 핵심적인 원리는 ‘지속’이다. 그리고 이 지속은 ‘가정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의 지속’을 의미한다. 자신이 가정 내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아내를 죽어야 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부분이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과 가정의 형태가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신뢰를 유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묻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향유층의 결론은 엄마의 부정을 고발한 딸의 서사,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 전하는 속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깡깡뺨> 이야기는 부부서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이야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서사적 갈림길은 ‘신뢰의 지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떠한 부부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부부는 없다.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에서 ‘신뢰’와 ‘지속’은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깡깡뺨>은 화두를 던지고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전설의 방식으로 ‘신뢰의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결혼이주 부부를 이해하거나, 실제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부부들에게 가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문화 설화의 작품서사로서 활용 가능성

이제까지 남녀서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말괄량이 깨오>를 선정하여 작품서사가 남녀서사의 핵심인 ‘나의 소망’과 ‘선택’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서사가 실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자신의 선택’을 지켜 온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부부서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깡깡뺨>을 선정하고 작품서사가 부부서사의 핵심인 신뢰와 ‘지속’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깡깡

뱀>은 전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향유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인식도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가정을 유지하려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의 유지에 '신뢰의 지속'이 가장 핵심임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다문화 설화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임상이 진행되었거나 현장에서 작품서사로 사용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기된 가능성을 토대로 앞으로 연구와 활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치료적 훈련을 받은 문학치료 상담사의 내적 세계는 다양한 작품서사들로 채워져 있고 그것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진단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²⁷⁾ 이를 위해 다문화 설화 작품들이 활용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기존 문학치료에서 해 오던 방식²⁸⁾으로 자기서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문화 설화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에 제시될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조사 방법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표본이나 대상자가 검사 문항의 의도나 해석 방식을 알고 있을 경우 그 표본이나 대상자의 대답이 정확한 답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²⁹⁾ 심리검사의 경우 특히 내담자가 오염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HTP검사 등을 행하는데 피검사자가 나무의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문의 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27) 장정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22면.

28) 정운채는 인간이 곧 문학이며 문학이 곧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그 치료의 대상인 서사를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정의했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52면 참조) 본 논문에서 말한 문학치료의 기존 방식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를 다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29) 실제로 같은 문항의 검사에서도 문항의 순서를 바꾸는 변화만으로도 답변의 경향이 달라진다. (이경수·송현주·손영우·황명잔·박영실, 「통계조사방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 『통계연구』 13, 통계청, 2008, 149~181면 참조) 그만큼 검사 및 조사과정에는 오염 및 변인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나무나 창문을 그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문학치료의 경우에도 피검자가 해당 설화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결말에 집중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소한 다문화 설화가 기존설화와 함께 검사나 치료에 사용 될 경우 문화적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다양한 반응이 피검자의 실제 자기서사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할 시에는 다문화 설화가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접근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오염을 방지해 주는 것은 기존 한국 설화가 해 줄 수 있다. 결국 다양한 국적과 서사를 가진 설화가 함께 사용된다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검사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 설화가 작품서사로써 활용되는 데 용이한 점은 현장성과 구술성에 있다. 세월의 검증을 거치며 생명력을 이어온 설화는 인생의 제반 문제를 전형적이고 상징적이며 심층적인 방식으로 함축한다.³⁰⁾ 원형성은 구전설화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에 가깝다. 다른 설화가 그러하듯 다문화 설화 역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형성되고 해결되는 작품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설화는 원형성뿐만 아니라 구술성과 현장성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기존 외국 설화가 전해지는 과정은 대개 문헌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헌에 의한 전파는 번역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번역 과정에서 오는 손실이다. 번역자들이 문학보다는 해당 언어의 전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내용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또 번역 과정에서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내용이 각색되는 경우가 있다.

30) 신동훈,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그림형제 민담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0면.



아 일단 제목은 <깨오나마>래요. [조사자: 깨오남?] 깨오나마 예요. 근데 그 깨오남은 깨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고 남은 약간 말 같은 얼굴이에요. (웃음) 그래서 말 같은 얼굴인 깨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중략...) 그래서 그 깨오는 수메르 산에 가서 비행선을 타고 수메르 산을 가서 (손날로 내리친다.) 칼로 이렇게 칼로 수메르 산을 자르고 데려왔어요. 가져왔어요. 그 [조사자: 산을?] 왕궁으로. 그래서 왕이 되게 막 당황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자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데 왕자는 도망갔어요.

위의 인용부분은 실제 구술 과정에서 조사자와 화자의 대화 내용이다. 현재 다문화 이주민에게서 설화를 채록하는 방식은 현지인에게 한국어로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려되는 원형적 서사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설화 구술 현장에서 조사자와 화자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부분이나 언어적으로 읊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대화, 그리고 대화 이외의 의사소통수단들(표정, 몸짓)을 통해 맥락의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부족한 해당 국가에 대한 정서나 인식을 상황에 따라 즉시 보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구술문학이 가진 현장적 역동성과 소통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기존에 번역된 다문화 설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문학치료에서는 치료자가 작품서사를 매개로 내담자의 자기서사와 상호작용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왜곡 없

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³¹⁾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설화를 구술하게 하는 것은 자기서사와 반응하여 기억하고 있는 작품서사를 언급하는 것이다.

남편은 먼저 숲에 가서, 원래는 뱀 만나러 가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야 그 뱀 나와요. 만나는 방식, 그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깡깡아 나 왔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은 그 뱀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은 그거 알게 됐으니까 숲에 가서 칼로, 큰 칼로 가서 똑같은 말로 했어요. 본인 딸한테 몰래 물어보니까 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뱀 와서 그 남편은 그 뱀 죽여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뱀은 요리로 만들어요. 어느 날 저녁식사는 만들어져서 부인이랑 딸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까마귀는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년아 그 고기 뱀 고기 먹구냐!” 그렇게 노래처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노래 부를 때는 눈물 흘렸어요.(…중략…) “오늘 우리는 호수, 호수 가서 같이 목욕하자.” 그렇게 부인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칼 같은 거 엄청 길었어요. 그거 들고 부인 데리고 호수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부인은 좀 느낌도 이상해 사실은. 그거 들고 가서. 좀 뭐가 남편 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편 데리고 가,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좀 불편한 느낌 들어요.³²⁾

근데 거기,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샘물 그 앞에서 도착하자마자 여자가 그 여자는 (위로 물을 붓는 동작하며) 이렇게 씻잖아요. 앉아다가. 남편은 몰래 뒤에서 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 뱀속에서는 뱀이, 뱀이 많이 있어요. 뱀이 많이 있구, 근데 그 남편은 그 뱀, 애기 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죽였는데, 근데 어떤 뱀은 숲 속에 들어가구, 어떤 뱀은 물 속에 들어가구, 어떤 뱀은 나무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뱀은 물속에서 살구, 어떤 뱀은 그냥 땅에 살구, 어떤 뱀은 나무에 살잖아요. 그거 남편에는 (칼 휘두르는 동작하며) 너무 이렇게 했잖아요. 발이 미끄러워서 칼로 넘어질 때 칼로 이렇게 자기 죽였어요. 그때부터 뱀이 이렇게 여러 종류도 있고 또 사는 곳도 다르게 됐어요. [조사자1 : 남편도 죽은 건 아니죠?] 남편

31) 장정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8면.

32) <깡깡뱀>은 2018년 2월 6일(화) 14:30-16:0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14 진주 YWCA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썸마카리(캄보디아, 여, 1988년생, 결혼이주 3년차)가 구술하였고, 김정은, 황승엽, 강새미가 조사하였다.

도 죽었어요. 자기가 하다가 발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때 이거 다쳤어요. [조사자] : 아 다 죽었네요. 딸만 살았군요.] 네 딸만 불쌍해요.³³⁾

위의 인용 부분은 각각 다른 화자들이 구연한 <깡깡뱀>이다. 첫 번째 인용부를 보면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이 들켰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뱀을 죽이는 장소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 숲 속이다. 두 번째 <깡깡뱀>에서는 아내를 죽인 남편이 아내 배에서 쏟아지는 뱀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르다 자신도 죽는다. 그리고 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설화의 변이부분이 기존에 구전되던 다른 변이형을 구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서사의 반영으로 변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학치료 방식에서는 작품서사를 제시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기서사를 진단했다. 물론, 기존 방식은 충분히 효과를 입증해왔다. 여기에 덧붙여 본고에서는 스스로 설화를 구술하게 하여 그 안에 반영된 자기서사를 진단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구술한 설화에 자기서사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설화를 구술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내담자의 자기서사를 비추어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설화 구술을 통해 자기서사 진단이 가능해진다면 자기서사 진단에 새로운 방식으로써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³⁴⁾

33) <깡깡뱀>은 2017년 10월 14일 16:00-18: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5 세 계문화체험관에서 렉가나(김혜나)(캄보디아, 여, 1988년생, 결혼이주 10년차)가 구술하였고, 김정은, 황승엽, 강새미, 이원영이 조사하였다.

34) 이야기관은 '이야기하기'를 권장한다. (심우장, 『이야기하기의 구술성에 대하여』, 『구비문학연구』 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411면.) 그 이야기는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이야기'일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는 화자라면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설화를 구연하다가 자연스럽게 생애담을 구연하는 것을 더 편안해한다. 실제로 다문화 설화를 구술하는 현장에서는 설화를 구연하다가 그 설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담을 구술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생애담을 이야기하다가 특정 주제와 연관된 설화를 구연하기도 하고 반대로 설화를 이야기하다가 생애담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는 상황은 문학치료의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설화를 구술하다가 자연스럽게 생애

다문화 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 이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고 더 이상 다문화가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간 문학치료의 주된 대상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문학치료의 성과를 이끌어낸 한국설화로 활용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기대된다. 체계적인 진단 과정과 치료에 대한 연구업적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화가 가진 원형성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서사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원주민과 함께 형성한 가정,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자기서사를 좀 더 면밀하게 드러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통을 위한 다문화 설화 연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포용한 만큼 그들의 정서와 서사가 담긴 이야기도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겪어온 갈등과 그 과정이 축적된 자기서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면서 갖게 된 집단서사의 왜곡, 편향화 된 부분을 해소³⁵⁾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사를 마련하는 것은 문학치료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다문화 설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문화 구술설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담을 추가 조사함으로써 구술치유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 (구술치유에 관한 연구는 김종근,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 『문학치료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을 참조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문화 설화 작품의 현장적 소통방식에 의한 자기서사 파악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현장적 소통 방식을 통한 생애담 연구와 그 문학치료학적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대하기로 한다.

35) 배영와김성범, 「문학치료의 텍스트 해석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폴 리퀴르의 은유, 상징, 내러티브 해석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45면 참조

4. 결론

본고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학치료학에서 다문화 설화가 어떤 서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현장적 소통 방식이 문학치료과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안했다.

우선 <말괄량이 깨오>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 없이 선택하고 표현하는 깨오의 모습을 통해 남녀서사의 핵심적인 부분인 ‘나의 소망’과 그 ‘선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서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구성한 다문화 가정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깡깡뻘>에서 아내는 지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신뢰의 지속’이 아니라 ‘형식의 지속’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지속’에 실패한다. 그 모습을 통해 실제 부부서사의 핵심이 ‘신뢰의 지속’임을 드러냈다. 두 이야기는 부부서사로써 ‘소통/신뢰의 지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결혼이주 부부를 이해하거나, 실제 가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품서사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닌 다문화 설화가 현재 문학치료 방식에 적용된다면 한국설화만으로 구성된 서사진단과정에 추가되어 내국인에게는 오염을 방지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검사 정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설화가 작품서사로써 활용되는데 용이한 점은 현장성과 구술성에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외국 설화가 전해오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현장성을 살려 내담자에게 설화를 구술하게 한다면 그 속에서 자기서사를 진단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잘 적용된다면 기존 자기서사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적용이다. 다문화 설화가 연구됨으로써 문학치료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서사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다문화사

회에서 문화/사회적 위험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거칠게 제시하였다. 다문화 설화의 개념을 다소 협소하게 한정지은 것이나, 해당 설화 작품에 대한 로컬리티의 반영이 미비한 부분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라 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설화가 문학치료에 온전히 활용되고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조하기 위해선 다문화 설화에 대한 더 세밀한 후속 연구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기호, 『현대 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 김민수, 「한국 구비설화에 나타난 성적 욕망의 억압과 해소 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정애, 「문학치료학의 ‘서사’ 개념의 정립 과정과 적용 양상」,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중근,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 『문학치료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 김혜미,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에 나타난 부부의 위기」, 『영화와문학치료』 1,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09.
- 김혜미, 「폭력서사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연구:학교폭력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나지영, 「인지역동 스키마 이론과의 연계를 통한 문학치료학 서사이론 발전 방향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박재인, 「한중일 조왕서사를 통해 본 가정 내 책임과 욕망의 조정 원리와 그 문학치료학적 의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배영의·김성범, 「문학치료의 텍스트 해석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폴 리콰르의 은유, 상징, 내러티브 해석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신동훈,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그림형제 민담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14.
- 심우장, 「이야기하기의 구술성에 대하여」, 『구비문학연구』 2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 이경수·송현주·손영우·황명진·박영실, 「통계조사방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 『통계연구』 13, 통계청, 2008.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 장정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문학치료의 효용」,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 정운채 외, 『문학치료학의 분야별 연구 성과』, 문학과 치료, 2013.
-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정운채, 「사회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치료학을 위한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1, 청관고전문학회, 1999.
- 정운채, 「자기서사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서사척도」,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6.
- 하은하,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 하은하, 「콩쥐팍쥐 설화에 나타난 부부 갈등 양상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동아시아 신데렐라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논총』 28,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황혜진·김정애·조은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문학치료 실행연구 시론」, 『문학치료연구』 1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 A.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 Larousse, 1966.

국문초록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김민수

문학치료가 문학과 인간의 서사를 돌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빠르게 발전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는 명칭에 익숙해졌다. 한국 사회에 다문화라는 화두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서 시각을 달리하여 다문화 설화 작품을 통해 문학치료학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이른다고 보는 만큼 다문화 설화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에 집중하여 그들의 형성과 유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남녀부부서사를 중심으로 살핀다. <말괄량이 깨오>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선택하고 표현하는 깨오의 모습을 통해 남녀서사의 핵심적인 부분인 '나의 소망'과 그 '선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서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구성한 다문화 가정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깡깡뽀>에서 아내는 지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신뢰의 지속'이 아니라 '형식의 지속'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지속'에 실패한다. 그 모습을 통해 실제 부부서사의 핵심이 '신뢰의 지속'임을 드러냈다. 두 이야기는 부부서사로써 '소통/신뢰의 지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결혼이주 부부를 이해하거나, 실제 가

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설화가 현재 문학치료 방식에 적용된다면 한국설화만으로 구성된 서사진단과정에 추가되어 내국인에게는 오염을 방지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검사 정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다문화 가정에의 적용이다. 다문화 설화가 연구됨으로써 문학치료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서사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는 당면한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사회적 위험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주제어: 다문화, 가정, 설화, <말괄량이 깨오>, <깡깡뽀>, 태국, 전설, 캄보디아, 민담, 남녀서사, 부부서사, 선택, 지속

Abstract

The Possibility of Literary Therapy Using Multi-cultural Folktales and Field Communication Methods

Kim, Min-Su

As literary therapy has developed rapidly following multilateral efforts preserve literature and the narrative of humans, Koreans have become familiar with the term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cept of multiple cultures is a reality in Korean society. Being freed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and analyzing multiple cultures,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using multicultural tales for literary therapy. In literary therapy, understanding literature is regarded as understanding humans. Therefore, understanding multicultural tales could lead to understanding multiple cultures.

By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form the majority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population in Korea, this author will intently examine male and female narratives, and couple narratives to understand their formation and sustenance. <Tomboy Ggae-o>; who believes that she is valuable, and effortlessly chooses and expresses her wants, reveals the keys to male and female narrative; “my hope” and “choice”. This kind of narrative helps us to understand people that choose and marry a spouse despite facing opposition from people around them. these people are at the cor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Ggaeng-ggeong-baem>, the wife struggles to maintain continuance, but fails because she dose not pursues “the continuance of trust” but rather “the continuance of forms”. This reveals the core of

couple narrative as “the continuance of trust”. The two stories are couple narratives and they talk about “communication/the continuance of trust”. Therefore, they may illustrat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understanding married immigrant couples endeavoring to build their families despit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Applying multicultural tales to literary therapy, and adding them to the narrative diagnosis process consisting of Korean tales only, could contribute to preventing pollution among Koreans, reducing barriers for foreigners, also enhancing the precision of the test. Multicultural tales can also be applied to multicultural families. Studying multicultural tales will make it possible to extend literary therapy, and to identify and solve the narrative of immigrants or multicultural families. This would in turn make it possible to convert cultural/social risks into opportunities in our current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 Multiple Cultures, Family, Tale, <Tomboy Ggae-o>, <Ggaeng-ggeong-baem>, Thailand, Legend, Cambodia, Folktale, Male and Female Narrative, Couple Narrative, Choice, Continuance